

느헤미야처럼 옛 틀을 깬 자

느 1:1-4, 행 13:1-3

정운돈목사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많은 종교가 있는데 거기서 오직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많은 교회가 있는데, 그 중 오직 예수 할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믿음의 길을 언약의 길을 걸어야 할 수 있는 축복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나에게 주신 천명, 소명,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응답과 해답을 얻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이 응답이 그대로 나의 삶 속에서 성취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약 4천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부르셨다. 오늘 느헤미야서를 나눌 텐데, 느헤미야서는 아브라함과 했던 그 약속을 성취하는 마지막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다. 여러분은 어떻게 교회에 다니게 되었는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게 되었는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으신 줄 믿기를 바란다. 한 번 도망가 봐라. 도망가 지는가. 하나님께서 영세 전에 약속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논도 하지 않으시고 붙잡으신다. 잘못하면 어려움을 주신다. 그 때 깨달아야 한다.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이다. 오직 예수로 행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을 부르시는 줄을 믿기를 바란다. 오직 예수로 결론내지 않으면 하나님은 계속 여러분에게 시련과 어려움을 주신다. 가장 중요한 것을 빼앗아가신다. 노예생활, 속국생활하게 하시는데, 그 이유는 징계가 없으면 사생아라고 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신다. 때문에 도망갈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에게 성취시키시는 하나님이니 줄 믿기를 바란다. 시대 시대마다 위기 속에서 그 나라를 건너려는 위인을 주셨다. 우리나라도 그러했다. 중국과의 전쟁 속에서 을지문덕 장군, 감감전장군, 임진왜란에서는 이순신 장군이였다. 그러한 역사처럼, 하나님은 시대시대마다 하나님이 쓰신 인물들이 있었다. 그 부분을 영적으로 잘 볼 수 있어야 한다. 세상 역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는 복음의 역사이다. 복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는 일을 볼 줄 알아야 한다. 그것이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이다. 세상도 그렇다. 옛날에 유명한 휴대폰 회사인 노키아, 모토로라에서는 휴대폰을 먼저 발명했다. 디지털 카메라로는 필름, 코닥이 먼저 발명했다. 그러나 시대의 흐름을 타지 못하니 현재는 다 망했다. 여러분이 성령충만하여 영적인 흐름을 보는 자가 되길 축원드린다. 오늘 나눌 느헤미야라는 인물도 멸종의 위기 속에서 언약의 백성의 믿음을 회복한 특별한 인물임을 말할 수 있다. 그 은혜를 나누기 전에 그 이전의 역사를 잠깐 보겠다. 4천 년 전에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3천 년 전에 다윗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강한 나라로 만드셨다. 하나님이 히11장 12절에 언약을 하셨다. '이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너희는 복의 근원이 되고 대표적인, 시대적인 응답을 주신다고 하셨다. 그런데 인간이 그렇다. 나라가 형성되고 강해지니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셨다.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720년에 망하게 하신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 언약의 백성인 남유다가 깨달아야 하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다.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강한 나라를 일으켜서 침공을 하게 하셨다. 그래서 1차 포로로 끌려간 것이다. 예수님이 오시기 60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 1차 포로로 끌려간 인물이 다니엘과 세 친구였다. 2차 포로로 끌려간 인물이 에스겔이다. 그발갈 가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다.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고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것이다. 3차에 포로로 끌려갈 때는 솔로몬이 이루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다. 다 빼앗겼다. 그때 많은 숫자의 백성이 바벨론에 끌려갔다. 그 때 그발갈 가에서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계속 기도한 것이다.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가 왔을 때 바벨론이라는 나라도 강력한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의해 멸망했다. 페르시아의 왕은 고레스 왕이었는데 모든 민족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고 자기 종교를 회복할 수 있는 회유책을 쓴 것이다. 그 전에는 바벨론과 아수르는 속국된 민족과 종교를 말살하는 강경책을 썼다. 힘들게 한 것이다. 그런데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했고 더 큰 나라를 다스려야 하는데 이 고레스 왕이 뜻밖의 사람이였다. 그래서 종교와 나라를 회복해서 '너희들은 반역한 하지 말고 조공만 하면 된다. 속국만 되면 된다.' 이런 식으로 나라를 운영했다. 그러한 배경속에서 1차포로 귀환을 하게 된다. 1차 귀환을 수습바벨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게 되었다. '너희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물으니 성전재건이었다. 그래서 성전을 짓게 한다. 그러나 성전재건의 반대자가 있어서 멈추게 된다. 이것을 바라봤던 에스라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학사 겸 제사장이었다. 이 사람은 평생 바벨론, 페르시아에서 나와 자란 사람이다. 이 사람이 구약 성경의 전체 율법을 연구하고 기록해서 유대인의 주요한 신앙의 텍스트를 완성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역사를 아는 것이다. 국가에서 중요한 일을 하는데 아닥사스다 왕에게 신뢰를 받은 것이다.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짓는데 말씀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하여 아닥사스다 왕이 허락해준 것이다. 그래서 이방사람과 결혼하는 사람들도 각서를 쓰고 그 과정에서 헤어지게 된 자들은 다 본국으로 보내게 된 것이다. 그 후로 20년이 지났는데 문제가 생겼다. 성전은 지었는데 성벽이 없다. 그 때 당시에는 이방사람들이 왔었다 하는데 성벽이 없으니가 지킬 수 없는 것이다. 모든 구약 예시지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확신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그 한계를 느낀 에스라가 그 후 20년 동안 성경을 연구한 것 같다. 이 때문에 학자들은 창세기부터 역대까지 정리를 한 사람이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라고 말한다. 그러나 진정한 교회의 회복과 복음의 회복은 실패한 상태였던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느헤미야라는 인물이 수장공, 아닥사스다 20년전에 에스라를 보냈던 같은 왕이다. 세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개혁이 안 되는 것이다. 민족도 성전도 회복이 되지 않는 것이다. 그런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느헤미야에게 남동생 이 연락을 취해 하니라는 인물이 전해준 예루살렘성전의 소식을

전해 온 것이다. '형님 성전이 다 무너지고, 성벽이 다 불타고 있습니다. 1차, 2차를 거쳐 포로들이 귀환을 했는데, 자기 먹고 사는 것만 생각하지, 전혀 신앙적인 개혁이 안 됩니다.' 라는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마음이 너무 아픈 것이다. 그래서 자기 옛 틀을 깨고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된 것이다. 그 이후로 언약의 백성을 살리는 사역을 하게 된다.

1. 이러한 배경 속에서 느헤미야는 어떠한 옛 틀을 깬을까?

(1) 그는 내 생각 중심의 틀을 깬 인물이었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였다. 이스라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는 이야기를 동생에게 전달받게 된다. 그때부터 그는 금식하여 기도하게 된다. 올해 신년에 24시간 금식기도를 선포했다. 지나가면서 물어봤더니 60%는 실패하시고, 30~40%만 성공하신 것 같다. 종교대학생 중에서 성공한 사람들 손 들어봐라. 램프가 없는 것 같다(웃음). 여러분, 금식을 한다는 것은 내 생각, 내 생명을 드리는 것이다. 아버지의 뜻을 찾아내는 것이다. 내 생각, 정욕을 깨지 않으면 금식이 안 된다. 1장 4절에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금식기도의 목적이 무엇인가. '내 뜻을 이루어주세요.'가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이것이요. 그러나 많은 분들이 내 뜻과 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자기를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는 인물이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금식하며 기도하였다. 행13장 2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킨 일을 위하여 떠나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예수님도 중요한 결정을 하실 때 밤새 기도하셨다. 사도행전 13장3절에 보면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금식을 한다는 것은 나의 생각과 주장을 완전히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행위인 줄을 믿기를 바란다. 또한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범한 이유가 나에게 있다고 고백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이며 복음이다. 1장 6절에 말하고 있다. 우리 같으면 '귀환한 너희들이 잘못했어' 했을 텐데 느헤미야는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므로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민족이 잘못된 것을 자기의 잘못이라고 고백했다. 우리 성도, 우리나라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누가 잘못된 것인가. 바로 나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주인의식을 갖기를 바란다. 정치가 잘못됐다. 교회에 문제가 있었을 때 목사님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았 습니다.' 직장에서든 마잔가지이다.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믿음이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었다. 이렇게 기도할 때 그는 왕의 술관원이 되도록 인도하셨다. 하나님은 기도에 반대로 응답할 때가 있다. 여러분이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상황이 더 안 좋아질 때가 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헤미야가 원래 술관원인 줄 알았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그 때 내가 술관원이 되었느니라.'라고 나온다. 그때가 소식을 듣고 기도한지 40일이 되었을 때이다. 이 말이 무엇이란면,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갑자기 인사이동이 되었는데, 술관원이 된 것이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셔야. 술 관원이 편한 일이겠는가 어려운 일이겠는가. 왕궁 안에서 잔치하려면 음식 준비, 음악 준비를 해야하지 않겠는가. 또한 왕이 술 즐기기 술 시중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아마 느헤미야가 더 좋은 자리에 있었을 것 같다. 열심히 기도했더니 인사발령이 술관원으로 난 것이다. 중요한 것은 술관원이 왕과 가까이 있을 수 있는 자리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더 안 좋은 자리로 인사발령이 났는데, 그것이 기도 응답의 방법이다. 네 달동안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은 느헤미야에게 응답을 주셨다. 왕의 옆에 있으니 보인다. 총리가 높았는가. 그 옆의 비서가 더 높겠는가. 술관원은 옆에 있다. 멀리 있을때는 잘 안보였는데 가까이 놓고 보니 느헤미야의 얼굴이 더 잘 볼 수 있지 않겠는가. 2장 3절에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다. 멀리 봤을 때는 얼굴이 좋아 보였는데 가까이 보니까 얼굴이 안 좋아보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2장 2절에 '그 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말한다. 예를 들자면 사장님이 술잔치 하고 기쁘게 마시는데 옆에서 인상상고 있으면 분위기 맘치 않겠는가. 어떤 사람은 베틀타를 이마에 매고 춤을 추고도 한다. 그런데 황제 옆에서 인상을 쓰고 있으면 '나 왜 근심이 있어?' 하고 묻는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야, 너 기분 나쁘면 나가.' 그 상황에서 죽을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인상을 감출 수가 없는 것이다. 성전에 대한 사랑, 민족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대한 사랑을 감출 수가 없는 것이다. 금식하며 기도하니 까 드러나게 된 것이다. 그 때 대답을 한 것이다. 이 대답에 따라서 살 수도 죽을 수도 있었다. 그때 2장 3절의 고백을 한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지금도 고레스 왕의 무덤이 있다. 페르시아는 어느 나라보다 조상의 묘를 중요하게 생각했다. 왕이 이해할 수 있는 찻마디를 꺼낸 것이다. '우리 조상의 묘실이 황폐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즉시 아닥사스다 왕이 왜 근심하는 얼굴인지 이해를 한 것이다. 그런데 성벽을 재건해야한다고 이야기 하지 않고 성문을 재건해야한다 이야기 한다. 성벽을 재건한다고 이야기 했으면 '반역을 하려고 하나?'하고 의심의 했을 것이다. 그런데 성문이 불타고 하니 '성문 무작 버퍼야지.'한 것이다. '그러나 황제폐하 제가 어찌 근심이 없겠습니까?' 라고 지혜롭게 이야기를 한 것이다. 그는 기도로 준비하였기 때문에 지혜롭게 말할 수 있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도만 하고 계획과 준비는 안 하는 사람이 있다. 어떤 사람은 계획만 하고 기도는 하지 않았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금식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그 시간에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금식을 하며 기도한 것이다. 그런 진실함이 있었던 것이다. 요새 조계법 사건 이야기가 들리는데, 나는 쇼트트랙 경기가 있으면 챙겨봤다. 그러나 이제 는 앞으로 못 볼 것 같다. 그냥 만 금메달이 아닌 것이다.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 모든 현상이 다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그 현장을 가서 다 살려내야 한다. 느헤미야가 그랬던 것이다. 마음이 아프니까 금식하며 기도 속에서 어떻게 준비할지 계획을 짰 것이다. 그 증거가 무엇인가. 그는 왕의 허기가 떨어지자마자 성전재건의 모든 행정적인 절차를 미리 준비해서 이야기 했다. '동쪽에서 서쪽 예루살렘까지 가려고 하면 많은 군부대의 검문소를 통과해야 하는데 왕의 조서를 주옵소서.' 하고 건축에 필요한 재료도 왕의 마음이 열린 그 순간에 딱 제사를 했다. 그래서 왕이 말하기를 군대와 마병과

지 다 붙여 주신 것이다. 미리 준비하면서 기도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내가 했다고 기록하지 않고 2장 8절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시므로' 라고 고백했다. 우리가 해야 할 기도와 준비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란다. 느헤미야는 단지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웠다. 모든 것을 결정할 때 하나님께 묻고 기도했다. 그는 나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고 기도의 사람, 실천의 사람이었다.

(2) 느헤미야는 물질 중심, 육신 중심이라는 옛 틀을 깨버린 하나님의 제자였다. 사람들은 안주하려고 한다. 쾌락중심으로 가려고 한다. 당연하고 필요한 것을 하지 않고 하는 척 하는 사람들이 많다. 회사에 갔을 때 여러분이 사자노릇하면 안 된다. 그러나 겸손하게 사장의식을 가져야 한다. 어디를 가든지 주인행세를 하면 안 되고 주인 의식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 필요한 사람이 된다. '이거 해.' 하면 딱 시킨 것만 한다. 그러면 잘라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지도자들은 다 공감할 것이다. '이거 해.' 하면 '못 하겠는데요.' 하는 사람 있다. 그럼 나가라고 하고 싶다. 직장생활 현장에 나가면 더 할 것이다. 내가 필요하니까 '그래요? 내가 알아보겠습니다.' 조금만 알아보면 되는 데 왜 안 하는가. 주인의식이 없어서 그런 것이다. 그런 사람은 나를 희생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 목적인 달성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 사람은 필요 없다. 여러분 깨닫기만 해도 새 틀이 만들어지는 줄을 믿기를 바란다. 먼저 마음이 바뀌어야 한다. '목사님, 어렵습니다. 나는 어려워요. 주인의식이 없고 주인행세만 하고 혜택을 받고 싶어요.' 그런 사람은 계속 복음을 들어야 한다. 영혼이 죽어있기 때문이다. 예수 십자가의 은혜가 없기 때문이다. 내가 조금 손해 보면 때려치고 빠진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안에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 내가 희생하고, 내가 죽어서 전체를 살린다. 그렇게 생각이 없기 때문에 몸이 움직이지 않는 것이다. 그런 사람은 계속 말씀을 들어야 한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마음과 생각이 바뀌고 몸도 따라가게 된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자신의 삶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시대적인 천명 사명을 자신의 소명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위해서 페르시아 수상궁을 떠났던 것이다. 아닥사스다 왕 이전의 왕이 아하수세로 왕이었다. 수상궁에서 왕을 폐하고 에스더를 왕후로 섬겼다. 거기서 느헤미야가 사역을 한 것이다.

(3) 그는 성공중심의 사람이 아니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나라와 민족을 진심으로 사랑한 사람이었다. 그는 왕의 술을 맡은 관원이었기 때문에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고 보장된 사람이었다. 힘든 일을 시키면 보통 그 다음에 좋은 자리에 가게 된다. 문재인대통령도 비서실장을 하다가 나중에는 대통령이 되었다. 이변에 비서실장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는데(웃음) 고생하고 24시간 대기한다. 그런데 다음이 보장되었다고 볼 수 있다. 술 맡은 관원이 힘들 수 있겠지만 그 다음이 보장된 것이다. 그 때 당시에는 왕을 얼마나 자주 보는가가 권력이었다. 그러니까 그는 최고의 권력 자리에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12년 동안 월급도 받지 않고 민족의 시스템을 회복하는 일에 헌신한 것이다. 5장 14절에 보면 내용이 나온다. '십이 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남동생은 '나와 형제' 라고 하지 않았는가. 괜히 형남에게 소식을 전해서 월급도 못 받고 힘들게 되어버리는 희생도 했던 것이다.

2. 느헤미야는 새 틀을 완성했던 사람이었다. 새 틀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원래 것을 회복하는 것이다. 원래 성전이 있었고 원래 예배를 잘 드렸다. 그런데 잘 먹고 잘 살아가야 하니가 주일성수도 안 하고 십일조도 다 안 한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둘 수 없으셨던 것이다. 그래서 어려움을 주신 것이다. 종교개혁이란 새 틀, 'Reformation'이다. 'form'은 '모습'이고 'Re'는 '다시'라는 뜻인데,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1) 느헤미야는 원래 있었던 성벽을 회복시켰다. 성전은 완성되었지만 성벽이 없었기 때문에 항상 위협한 상태였다. 이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많은 방해와 저항이 있었다.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다. 하나님의 일에도 방해하는 사람은 반드시 있다. 사단이 존재한다. 응답, 축복 받을수록 사단은 가만히 있지 않는다. 거기에 절대 속으면 안 된다. 2장 1절에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는 것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롯하여 우리가 싸움을 하는 사람보다 말리는 사람이 더 많았을 때가 있다. 2장 4절에 그 사람이 도비야이다.' '같은 사람 도비야는 결이 같아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울라기도 암 무너지리라 하더라.' 여러분이 선한 일, 하나님의 일에 동조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란다. 성경에 나온다. 하나님의 일에 주역이 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오히려 반대자로 인하여 오히려 마음이 하나가 되어 52일 만에 완공하게 되었다. 2장 6절에 보면 백성이 마음을 들여 일을 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성벽재건은 중요한 일이지만 너무 힘들다. 그런데 반대자들이 있었으나 오히려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빨리 완공하게 된 것이다. 사단은 방해하지만 하나님은 그 이상의 일을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속으면 안 된다. 이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느헤미야의 지혜와 리더십을 볼 수 있다. 먼저 조용히 가서 현장분석을 3일 동안 했다. 그리고 개개인에게 맞는 성전재건 일을 준 것이다. 모두 다 참여하는데 가난한 사람은 살고 있는 곳 바로 앞의 성벽을 건축하게 한다. 그러나 성전 외곽과, 탑을 성루라고 하는데 귀족이나 돈 많은 사람에게 맡긴다. 역할과 능력이 맞게 일을 준 것이다. 모두 다 참여하되 유리의 달란트, 경제, 능력에 맞게끔 담당하는 것이다. 그것이 원스인 것이다. 3장 32절에 보면 '성 모듬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돈이 많은 사람인 것이다. 성루는 탑인데 그냥 쌓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역할을 맡긴 것이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빠지지 않고 참여하도록 했다. 여성들과 딸들까지 참여하게 했다. 그런데 이 성전을 건축하거나 적들이 와서 방해하려는 정보를 들었다. 이것도 양면이다. 우리는 싸움을 하고 칼을 차고 건축하자. 이야기한 것이다. 이것이 영적전투이다. 교회 안에 여러분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가정생활에서도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직장생활, 학교생활도 마찬가지이다.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상처를 주고받는다. 2장 17절에 보면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뿐만 아니라 옷도 벗지 않았다. 2장 23절에 보면 '나와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므로 물을 길으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집중해서 어떤 일을 할 때는 그냥 입고 자는 것이다.

(2) 말씀의 틀을 새롭게 회복했다. 중직자 느헤미야는 먼저 도착한 목회자 에레미야가 말씀운동을 새롭게 펼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이다. 그 결과 모든 백성이 말씀운동에 동참하게 된 것이다. 2장 1절 중간에 보면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과거에는 에스라가 성경공부하자고 했는데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어려움이 닦치고 성벽 재건의 일을 하다 보니까 말씀이 필요한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일하면서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라다가, 그 후로는 말씀운동을 스스로 하게 된 것이다. 2장 2절에 보면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아이들을 만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2장 3절에 보면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아이들을 만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으매 모든 백성이 그 율법책을 귀를 기울였는데 새벽부터 절한 것이다. 생각해보니 비전스쿨이 그렇게 한다. 아침부터 낮까지 말씀 안에서 산다. 말씀이 각인된 것이다. 느헤미야가 신앙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다니엘, 에스겔, 모르드개, 에스더, 이 사람들이 후대들에게 언약을 전달한 것이다. 그러니까 3,4대가 된 느헤미야가 오히려 믿음이 좋았던 것이다. 에스라도 마찬가지이다.

(3) 13장 마지막 절에 보면 느헤미야는 또 다시 잃어버렸던 신앙의 새 틀을 회복했다. 무슨 말인가. 느헤미야는 성벽을 회복한 후 잠시 페르시아로 갔다가 아닥사스다 왕을 알현하게 된다. 그리고 난 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보니 그들은 주일성수도 안 하고 십일조도 안 하고 이방어인들과 결혼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다. 또 교회를 방해했던 사람들이 성전을 휘젓고 다니는 것이다. 이 사람들을 쫓아내고 최종적으로 회복한다. 느헤미야는 그들을 엄중히 꾸짖고 다시 이 세 가지를 회복하도록 말했다. 지난번에 에스라서를 이야기할 때 말했다. 에스라서에서는 이방어인들과 결혼하고 말을 안 들으니까 에스라는 자기 수업을 듣지 않았는가. 느헤미야는 중직자였는데, 13장 25절에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카락을 뽑고' 장로님은 이렇게 멋있어야 한다.(웃음) 목회자는 참아야 한다. 그런데 중직자는 괜찮다.(웃음) 그런데도 때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언약을 붙잡고 맛있는 일에 생명을 걸어야 한다. 아닌 일에는 아닌 것이라고 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이 맞으면 수용할 수 있는 대장부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 제대로 복음운동을 하고 제대로 옳은 것을 이야기해야 한다. 느헤미야와 같은 리더십을 갖기를 축원한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이 세 가지를 철저히 지키고 있다. 안산일을 철저히 지키고 우상숭배 하지 않고 이방결혼도 철저히 안 했다. 지금 이스라엘은 복음은 약하지만 지금도 세계를 움직이는 강한 민족으로 존재할 수 있도록 마지막 역할을 했던 인물의 느헤미야였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이 시대에 회복하고 새롭게 재건해야 될 성전과 영적인 틀은 무엇인가.

1. 언약이다. 오직 예수라는 구원의 새 틀을 회복해야겠다. 유대인들은 틈만 나면 세상과 타협하고 우상숭배하며 세상 사람들과 혼란되었다. 현재 한국교회 성도들의 문제도 이와 같다. 오직 예수로 하지 않고 자유주의신앙, 종교다원주의를 따라가는 많은 교단과 목회자들이 많다. 유럽, 미국은 교회가 문 닫고 있다. 그 교회를 우리가 인수해야 한다. 우리 교회에서도 미국의 교회를 시는 헌금을 시작하자. 류복사님이 강사단 메시지에서 5천만원이든 산다고 한다. 헌당도 해야겠지만 선교도 더불어 해야 한다. 미디어도 바뀌어야 한다. 역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감동, 응답 받은 대로 하면 된다. 교회에서는 헌금 안 한다고 차암딱지 붙이지 않는다. 이 이야기는 해야 할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고 안 해야 할 사람은 안 해도 된다. 하나님 은혜 따라 하는 것이지 절대로 부담가질 필요 없다. 그 사람들이 하도록 기도만 하면 된다.
2. 우리의 비전은 재임에 빠진 시대를 복음으로 치유하는 것이다. 지금은 분쟁시대이다. 이념갈등시대이다.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목사님들도 이념에, 지역에 쫓겨서 좌파니, 우파니 말한다. 전도나 잘 하지. 거기에겐 목숨을 걸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렇게 목숨을 건다. 그것이 복음으로 성당하나보다. 아니다. 행복과 감사가 없다. 그래서 감사헌팅을 해야 한다. 정신병 시대이다. 꿈이 없다. 정신병 환자에게 드림캠프를 해야 한다. 중독시대이다. 중독자들은 미래가 없다. 미래캠프를 해줘야 한다. 혼합 민족 시대이다. 237개 나라를 다 살리는 서밋캠프를 해야 한다.
3. 우리들의 꿈은 7가지 지속해야 할 치유의 난장을 살리는 것이다. 빈곤, TCK, 제 3 문화권을 살려야 한다. 소외된 곳, 탈북자, 난민들을 도와줘야 한다. 버려진 사람들이 너무 많다. 불법체류자, 홀로 사는 노인들, 버려진 곳이 많다. 그래서 여러분이 부자 되어야 한다. 흑암시대 범죄자들이 많다. 사각지대, 연연인, 예체능이 사각지대이다. 재앙시대 우상이 가득한 곳도 많다. 미래지대, 동성애는 미래를 망하게 만든다.
4. 기도이다. 7현장에 단독 시스템이 세워지도록 우리는 24시 기도해야겠다. 시간표에 맞게 그 7현장이 바로 전도복지, 전도NGO, 미자립, 문화, 난민 탈북자, 다문화, 다민족, 엘리트까지 치유할 수 있도록.
5. 실천해야겠다. 이 모든 비전과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7가지 랩넨트 교육을 한 가지씩 실천해야 한다. 느헤미야와 에스라 같은 인물이 나온 이유는 조상들이 그런 영적인 교육시스템을 잘 만들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유대인처럼 토라, 쉘라, 탈무드가 아니라 성경적 교육을 해야 한다. 위인이 아니라 7명의 랩넨트와 롬 16장과 같은 인물들을 만들어야 한다. 3절기가 아니라 사도행전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로 결론난 교육을 해야 한다. 안산일이 아니라 주일이다. 성인식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가 되는 후대들을 만들어야 한다. 회당이 아니라 다락방의 응답을 받은 후대, 그것이 유일성이다. 톨지가 아니라 지교회. 이것이 진정한 지교회, 전문교회 재창조이다. 오늘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바로 느헤미야, 에스라보다 더 맛있는 팀이 되고 더 큰 축복을 누리시길 축원한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를 불러주시어 이 시대 살릴 꿈과 비전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연약하고 무능하고 부족한 것이 많사오니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시사 하나님, 이 시대를 깨우고 살리고 그 틀을 바꿀 수 있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복음 안에서 새롭게 만들 수 있는 주역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 하여주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